

우리의 근본(잠언 1:1-19)

▶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따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들으면 설교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약속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잠언이다. 삶의 지혜를 주는 짧은 속담, 격언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궁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삶이 복잡해졌다.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딸들을 자꾸 주는 것이다. 근데 이 여성들이 올 때 자기 나라 신도 같이 가지고 왔다. 그러다 결국 솔로몬도 우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과 한 후 자기가 깨달은 것을 토해 낸 메시지이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 전도서는 전도의 입장에서 썼고 아가서는 자기 개인의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기록했다.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단순한 육신적인 삶 속에서 얻은 경험만이 아닌 영적인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를 토하듯 고백하였다. 그래서 잠언을 단지 그냥 격언, 속담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잠언 1:5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 솔로몬은 지혜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명철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딤후 2: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충명을 주시리라

▶ 젊을 때는 다 된 줄 알고 날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에게 근신을 준다고 했다. 또한 학식과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난 후 결론을 이야기 한 것이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잠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되는 지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7절이다.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느니라

▶ 평생에 결론이다. 솔로몬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 돌맹이 같이 금과 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음 대에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런 세월을 살고 난 뒤 결론으로 말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란 말씀이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던 이 놀라운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근본이 되었다. 이 영적인 작업이 우리 안에 근본을 형성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난 뒤에 행한다.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지식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많이 배웠고 사회에서 배운 것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지식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없다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된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해를 준다면 왜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잘 되게 하려면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근본 바탕 위에 그 다음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 사실 하나님 모르고 많이 배우면 뭐하겠는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지식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목회자들 중에 보면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분들 계시다. 학식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목회가 너무 안 된다. 즉 전도 안 된다는 말이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봐도 죄송할 만큼 무식하다. 우리가 볼 땐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바쁜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런거라고. 그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이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소용이 없어진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라면 그렇다.

▶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한다. 아니면 지식은 오히려 우릴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차라리 적게 배우면 좋을 것을 싶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그 근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영적 바탕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소속이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다. 많이 배웠던 것이 진짜 지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이 더 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뻔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주 뿌리째! 그리고 송두리째! 역전 시켜버렸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게 언약이 되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역사한다. 언약으로 마음에 심는 행위는 이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행위가 어느 날 약속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다. 응답으로 때론 기적으로 나타난다! 24시간 평생 이 기적의 삶을 사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심는 것!

▶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잠언을 주셨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언약이 문제다.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고 결론적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미련하게 될 것이다. 미련한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한다. 이것과 관계없이 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최고 훈계는 무엇인가?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를 누려라! 그리고 그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그 이름을 고백하라. 이것이 네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 나의 말씀을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훈계이다. 이것보다 더 큰 훈계는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겠는가?

▶ 천국 가는 것만이 최고 지혜는 아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짜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 지혜이다. 공짜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이름을 매일 고백하고 그 능력과 권세 안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심어**

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역사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이다. 이것이면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것이다.

▶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렇구나!**” 하고 도장 찍어야 한다. 그 날이 오늘이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이 날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세월이 지나고 지속되면 더욱 깊어지고 계속 변화 일어난다.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다. 언약되기 바란다.

2. 이 근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잠언 1:10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꺾지라도 따르지 말라

▶ 개인적으로 피를 토하며 이야기 했을 것이다. 지난날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이 고백을 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돼! 잘 된다고 편안하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안돼! 악한 자는 사단의 도구 아닌가?

잠언 1:11-15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옆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돈주머니)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언 1:18-19 그들이 가만히 옆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근본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는 답!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 잠시 넘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일어서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힘!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다. 얼마나 인정하는가? 진짜 영적 존재인가? 창 2:7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전에는 무엇이었는가? 그 전에는 그냥 흙이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흙이지만 근본은 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근본 되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창 1:27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다. 개는 아무리 괴로워도 기도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개가 일 안 풀린다고 무당에게 굿하러 가겠는가?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그러부터 온 생기가이다.

▶ 우리는 문제가 오면 처음에는 육신적 노력을 한다. 제일 손쉬우니까. 그러나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 도달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다. 아주 점잖은 사람도 자꾸 이야기 하면 못 이기는척하며 미신을 믿어본다. 영적 존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 생기가 당연히 흙을 좌지우지 해야 하는 것이다. 흙이 생기를 좌지우지 하겠는가? 말이 안 된다. 생기가 들어오므로 생령이 된 것. 그 전에는 죽은 흙이었다. 그러므로 흙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이 이 흙 중심으로 산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게 사는 것. 방법이 자꾸 틀리다. 똑같은 일들이 반

복적으로 일어난다. 흙을 중심으로 사니까. 근본은 생기고 생령인데, 그 문제가 눈으로 볼 때는 종류가 많다. 그러나 원리로 따지면 하나뿐이다. 무엇인가? 흙을 중심으로 살다가 사단에게 꼬임 당한 것이다. 아직까지 생기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진짜 언약이면 그런 일 없다. 혹 있다 해도 반드시 역전 된다! 반드시 두 배 이상의 축복으로 돌아온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답을 잡고 일어서게 하신다. 때론 그 답이 인생 전체의 답이 되기도 한다.

▶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는데 있다. 왜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잘 안되는가?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왜 하기 싫을까? 어떤 분은 왜 하는데도 안 될까? 이유를 확실하게 집어야 한다. 이유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언약이 확실치 않아서 그렇다.

▶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다. 위로부터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 있다. 근본으로부터 온 영적인 힘이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사단이 무너지는 언약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 눈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사단이 무너지면 문이 열린다. 이 영향권에서 해방을 받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이다.

▶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것도, 할 것도 없다. 내 주변에 사단이 무너질 정도만이라도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한다. 이것이 진짜 답이다. 우리는 대개 비범함 같은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을 섞는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자신은 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100%의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 기분이 좋을 때는 100%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 고백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결국 기분에 의해서 했던 고백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다.

▶ 노예가 총리된 역사는 요셉의 육신적인 역사가 아니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흙이었다. 흙이 노예를 총리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언약으로 발견되어지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그 안에 최고의 훈계가 함께 들어있다.

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 이 시대의 지혜는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16: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 하나님은 그를 표적이라고 했다. 그 안에서 성령충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약속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